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16.(월)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창립 60주년 앞두고 새로운 100년 청사진 제시

- 11월 16일 대전 본사서 창립 59주년 기념식 개최, 2030 중장기 AX 전략 공유
- 양 사장 “국정과제 이행 든든한 파트너, 물산업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강조
- 물기업 육성으로 성장 온기 나누고 댐주변 지원사업 혁신 등 양극화·지방소멸 대응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양승조)는 11월 16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AI로 물길을 읽고, 사람과 함께 완성합니다’를 주제로 창립 5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양승조 사장은 기념사에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끈기, 그리고 낮은 곳부터 먼저 채우는 물의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창립 6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관리를 넘어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국민에게 고루 나누는 새로운 100년 방향을 제시했다.

양 사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속도와 품질로 적기에 물을 공급하며 ‘첨단산업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 역량을 모아갈 것을 약속했다.

물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갈 것도 밝혔다. 초순수,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해수담수화 등 한국수자원공사만의 독보적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개척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의 물 인프라를 혁신 기업의 성장 무대로 개방하고, 국내 물기업과 동반진출 기회를 넓혀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의 온기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데도 힘을 쏟는다. 기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주민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혁신하는 등 저출산,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대한민국 표준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2030년까지 전사적 AI 전환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도 구체화했다. 수자원 분야는 'AI-DT(인공지능-디지털트윈) 에이전트'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수도 분야는 정수장부터 취수장, 관망까지 데이터를 연결해 AI 예측 범위를 넓힌다. 시설안전 분야는 로봇을 활용해 위험 사각지대에 선제 대응하는 등 '피지컬 AI'를 본격화한다.

나아가 60여 년간 축적된 물관리 지식을 담은 'AI 플랫폼 갤러리'를 구축해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 나간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60주년 TF'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양승조 사장은 "기후위기 속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방주이자 첨단산업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새로운 100년,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와 성장이라는 과제를 넘어 양극화와 저출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국민과 함께 풀고,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한 물길을 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3매(별첨) 끝.

담당 부서	인재경영실 총무부	책임자	부 장	서정욱 (042-629-2601)
		담당자	차 장	정원섭 (042-629-2602)
	AI혁신처 AI기획부	책임자	부 장	백경목 (042-629-3801)
		담당자	차 장	노경률 (042-629-38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16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양승조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AI로 물길을 읽고, 사람과 함께 완성합니다'를 주제로 2030 중장기 AX 전략을 공유하며 창립 5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양승조 사장은 기념사에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끈기, 그리고 낮은 곳부터 먼저 채우는 물의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2. 11월 16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양승조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3. 11월 16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양승조 사장(사진 가운데)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